

오피니언

데스크시각

김주정



지자체 통합 논란이 막판으로 치닫고 있다. 30일까지 행정구역 자율통합 논의...

졌다. 소지역주의를 극복하려다 오히려 자국하는 모양새가 됐다. 이런 결과는 이미 예견됐다.

道 없애서는 안된다

다 많은 권한 이양과 '잘 사는 고장 만들기'라는 지방의 목소리에 충신했다기보다는...

정략의 대상으로 전략

이명박 대통령이 8·15 경축사를 통해 지방행정체제 개편을 국회에 주문하고...

관련법도 없는데 정부 지침만으로 추진하는 것이 더 큰 문제다. 경제적 이익을 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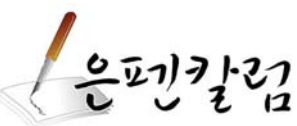
시기도 아니다. 선거를 코앞에 둔 단체장들이 예산절감·주민불편 해소 등 행정의 효율성만을 따지지 않을 것이다.

경제통합이 키워드

물론, 현행 지방행정체제를 그대로 두자는 말은 아니다. 개편하려면 제대로 하자는 것이다.

<경제부장> jinews@kwangju.co.kr

독자투고 환영합니다. 이름·주소·전화번호를 써주세요. 501-711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광주일보 오피니언 담당자/전화 062-2200-628/팩스 062-222-4918/e메일 opinion@kwangju.co.kr



목영석



사들이면 민족 최대의 명절인 추석이다. 더위도 물러가고 서늘한 바람이며...

해도 독감보다 치사율이 낮다 한다. IMF체제하의 암울하던 시절에도 명절은 있었지만...

추석선물 아직 못 고르셨다면

라"는 말대로 추석처럼 풍요롭고 감사한 명절이 또 있을까. 하지만, 어느 때보다 풍년을 구가할 것 같은 올 추석이 달갑지만 않은 것은...

를 보내고 싶지만, 받는 사람이 부담스러워한다면 그런 이미 선물이 아닌 애물단지가 된다. 갖고 싶고 먹어 보고 싶었지만 내 돈 들여 선물 사기가 어려운 버섯류나...

광주일보는 '오피니언'면 기고중 분기별 최우수작을 선정해 '은펜상'을 수여합니다. 은펜칼립은 이들 수상자들의 모임인 '은펜클럽' 회원들의 갈림을 쓰는 코너입니다.

한식 세계화 위해 '코리아 셀렉트' 만들었으면

작년 말에 태국 대사관에서는 '타이 셀렉트(Thai Select)' 수육이라는 게 열렸다. 태국이 해외에 있는 태국식당에 '태국 정부가 인정하는 맛과 서비스, 위생을 갖춘 음식점'이라고 인정을 해주는 제도이다.

산물까지 갖춘 곳이다. 한식을 대표하는 전라도 비빔밥부터 시작해 우리가 자랑하고 세계화 시킬 수 있는 음식이 부지기수로 많다. 즉 우리 한식의 세계화를 추진하는 우리나라 정부 당국과 전라남북도 자치단체가...

독자투고를 기다립니다. 주변의 작은 이야기들, 생활의 경험 등 어떤 내용의 원고나 사진, 만화, 민평도 환영합니다. 채택된 원고는 교료도 지급합니다.

기고

고재권



농촌진흥청에서는 우리나라 농업·농촌을 더욱 부흥시키고 생명, 환경, 전통 문화가 조화된 쾌적한 자립형 복지농촌 실현을 위해 '푸른 농촌 희망찾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다.

철로 번에 색상이 화려한 벼를 이용하여 글씨나 그림을 새겨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고, 도시에서 농사를 짓는 밭담 식물공장은 저탄소 발광다이오드(LED)를 이용하여 농작물의 개화나 수확시기, 비타민 성분을 조절하는 기술 등을 말할 수 있다.

녹색기술, 푸른 농촌에서 시작한다

소비자가 신뢰하는 안전한 농산물 생산하기 운동, 뜰에는 깨끗한 농촌 만들기 운동, 셋째는 농업인의 의식을 선진화하는 운동으로 현대 농업인은 지역 농업의 문제와 농촌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자립 의지와 역량을 키워나가야 할 때이다.

재를 창출해내는 녹색기술 친환경 주택을 만들기도 한다. 기존 농업의 개념과 영역은 식량작물을 재배하고 생산을 주로 하였다. 앞으로 농업은 보고 즐기는 농업, 같이 공감하고 생활하는 농업, 질병을 치료하는 농업뿐만 아니라 공정한 농업, 고부가가치 최첨단 농업이 활발히 전개되는 희망과 비전의 농업시대가 다가오고 있는 것이다.

<농촌진흥청 벼육종재배과장>

행사때 사용되는 생수, 낭비 심하다

며칠 전 모 공공 단체에서 관계자들을 초청해 앞으로의 사업발전 방향에 대한 설명회를 하는 행사가 있었다. 그런데 행사가 끝난 후 약간 "이건 아닌데" 하는 일을 목격했다. 화장실에서 손을 씻으려고 세면대 쪽으로 갔더니 청소하시는 아줌마가 500ml짜리 생수병을 수십 개 들고와서 그 안에 들어있던 물을 죄다 버리고 있었다.

하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수자원 부족 국가인데 이렇게 함부로 아까운 물이 버려지고 있는 것이다. 어떤 모임이나 행사에 가면 주최 측에서 개인들에게 생수를 지급하는 것이 요즘은 흔하다. 그런데 대부분 참석자가 물을 마셔봤자 한두 모금뿐이다. 여차하면 행사에 물이 필요하면 쓸데없이 1인당 1통씩 무작정 지급할 게 아니라 2~3명당 1통씩 주고, 필요한 경우에만 추가로 지급하는 게 환경오염도 막고 물도 아낄 수 있지 않을까. 앞으로는 이렇게 마구 버려지는 물이 없도록 해야 한다.

▲유병희·광주시 북구 신용동

시설

예산 삭감으로 제동 걸린 지역 현안사업

지역 현안사업 추진에 빨간 불이 켜졌다.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 광주·전남 지역 현안사업과 관련된 예산들이 대폭 삭감됐기 때문이다. 특히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성공과 지원금 제정으로 순항이 기대됐던 포물러리(F1)대회가 '국고지출 삭감'이라는 압초에 봉착했다. 경주장 건설비용 등 관련 예산 1천200억원이 내년 예산에 포함되지 않아 자칫하면 내년 10월로 예정된 코리아 그랑프리 자체가 제외되는 최악의 상황마저 우려되고 있다.

추가 확보하는 것은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올해는 국비 확보가 그 어느 때보다 힘들어진 탓에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부처, 정치권이 치밀한 공조체제를 구축하는 사상 유례없는 '예산 확보전쟁'을 벌였다. 대구시와 부산시가 각각 3조원대의 국비 예산을 배정받은 것도 이 같은 공조가 한 몫 했다. 반면 광주·전남지역은 시·도와 지역 정치권 간 공조체제가 삐걱거리 지역민들의 눈총을 받아왔다. 정부의 지역 확대 외에도 예산안 편성 초기에 실질적인 협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것이 현안사업예산 누락의 한 원인이 아닌지 되돌아볼 필요가 있다. 광주시와 전남도는 이제라도 지역 정치권과 긴밀한 공조로 국비 확보에 박차를 가해야 한다. 예산 배정을 둘러싸고 지자체와 정치권이 서로 자신의 공을 내세우는 불협 사나운 모습도 이제 사라져야 한다.

쌀 근본적인 수급 대책 세워야

쌀값 하락에 대한 농민들의 분노가 커지고 있다. 전국 곳곳에서 수확기를 맞아 벼를 갈아엎고 단식투쟁을 하는 등 극단적인 행동까지 서슴지 않고 있는 것이다. 쌀값 폭락으로 생존권마저 위협받고 있기 때문이다. 산지 벼 가격은 지난 5일 기준 40kg당 4만8천123원으로 지난해 대비 14.2% 하락했다. 얇은 데 달린 격으로 올해 벼 수확량은 평년작(457만)을 넘는 465만 수준이 점쳐지고 있다. 쌀값 불안에 대한 농민들의 수심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쌀값 폭락은 쌀 수급의 불균형이 가장 큰 원인이다. 95년 106.5kg이던 1인당 연간 밥살 소비량은 지난해 75.8kg으로 크게 줄었다. 여기에 쌀 관세화(시장 개방) 유보의 대가로 매년 의무적으로 수입해야 하는 쌀 최소시정점(MMA) 물량이 30만톤을 웃돈다. 현 정부 들어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중단된 것도 쌀 재고 증가에 한몫하고 있는 셈이다.

쌀값 폭락에 대한 정부의 인식도 너무 안이하다. 장태평 농식품부 장관은 최근 "가격이 내려가고 있지만 소득 직불제가 마련돼 있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이라고 했다. 벼 농사를 지어선 밭만 들어가는 농촌의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이 아닐 수 없다. 정부는 29일 수확기 매입 물량을 지난해보다 23만 늘리고 공공비축미 18만톤을 격리하는 등 쌀값 안정대책을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일시적으로 쌀값 하락을 막는데 도움이 되었지만 근본적인 대책은 될 수 없다. 공공비축물량의 확대, 변동지불금 목표가격의 최저생산비 수준 향상 등 근본적인 방안이 강구돼야 한다는 얘기다. 대북 쌀 지원 재개와 쌀 가공산업 활성화 등 쌀소비 진작책도 뒤따라야 할 것은 물론이다. 쌀값 안정은 국가의 식량 안보차원에 서도 긴요하다. 쌀농사의 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특단의 대책을 서둘러야 하는 이유다.

無等鼓

어린 시절 누구나 한뼘쯤은 갖고 놀았을 법한 '루빅 큐브'(The Rubik's Cube) 얘기다. 헝가리 부다페스트 대학교수이자 건축가인 에르노 루빅(65)에 의해 지난 1980년 발명된 루빅은 전 세계 3억5천만명이 구매할 만큼 장난감 퍼즐로서의 독보적인 위치를 확보했다. 그 루빅이 개발자인 루빅 교수의 손에서 다시 한 번 진화할 태세다. 30년 만에 차세대 모델이 출시될 예정이어서 루빅 마니아들을 흥분시키고 있다.

논리로 구성돼 있다고 조연하지만 이를 실행에 옮기는 것은 매우 복잡한 것 같다. 루빅 교수의 루빅 360은 루빅 큐브 이래로 가장 흥미롭고 혁신적인 장난감 퍼즐로 자리매김할 것이라며 마니아들의 기대를 잔뜩 부풀려놓고 있다. 루빅 교수가 최근 계명대 특임교수로 임명돼 내년 초 신설되는 건축학 대학에서 향후 10년간 특강과 프로그램 교수를 담당한다.

에르노 루빅



그는 이번 내한특강에서 "겨울철에는 단열과 에너지소비 등을 고려해 건물을 짓듯이 끊임없이 변하는 자연은 건축방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라며 "이를 위해 새로운 기술과 새 건축방식이 계속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손바닥 안의 장난감 하나로 세계인들을 울고 울린 데 이어, 국제루빅장재 내부에 6개의 공이 담겨 있다. 외형은 물론 문제를 풀 수 있는 논리와 방법 또한 이전의 루빅 큐브와는 전혀 다르다. 전문가들은 이 퍼즐은 한가지 해결방법으로 풀 수 있기 때문에 비교적 간단한

光 州 日 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柳濟喆. 논설실장: 丁在炫. 편집국장: 曹庚亮. 1952년 4월 20일 창간.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기1(일간)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가 20-2 우편번호 501-711. 대표전화 222-8111, 2200-551(지사·지국)독독신문·배달안내 www.kwangju.co.kr